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시온의 대로

성경: 시편84편

Tag: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한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다. 아마도 고라는 매우 유능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으며, 지도력과 영적인 소양까지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모세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스리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다. 교만은 그의 눈을 가렸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자기 자신만 제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여겨졌다. 물론 모세에게 고라의 지도력까지 함께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모세에게 충성하고 협력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의 교만은 모세의 지위를 탐하였다.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날때부터 선택하신 자였다. 모세도 한때는 무분별한 자였고, 말도 어눌하였고, 비협조적인 아내가 있었고, 다혈질적인 자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인 자였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는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고, 10개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 자였다. 그에게 고라와 같은 장점이 있었다면 더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장점이 없다는 것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아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으며,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만의 극치인 셈이다.

그는 모세에게 대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든거와 같았다.

반역의 기운은 점점 커져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

후에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그들도 레위인이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주로 문지기(살룸)와 성가대(헤만)에서 일하게 된다.

11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26:11)

시편에는 그들이 지은 시가 12편 소개되어 있다.

특히 42편이 가장 유명하다.

1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
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니이다

깃뎃에 맞춘 노래; ‘깃뎃’이라는 리듬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뜻.

1. 주의 장막을 향한 사랑의 노래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들은 주의 성막(장막)을 어깨에 짊어지고 광야 40년을 보냈다.

-가나안에서는 순번제로 장막에 가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드리는 데 봉사 하였다.

-특히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가대를, 일찌기 사무엘은 문지기를 조직하여 봉사토록 하였다. (성전에는 보물들도 있었으므로)

-이 시편은 솔로몬의 성전을 담당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솔로몬 성전 보다는 자신들이 짊어지고 평생을 대를 이어 지켜왔던 장막이었으니 남다른 애정이 깃들었을 것이다. 정도 들고 은혜도 많이 입었을 것이다.

-다른 지파보다는 훨씬 많이 성막과 성전에 가까이에서 일하였고, 일하는 동안에는 정결예식에 힘썼으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일했으니, 아마도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지냈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집에서 밭일을 하면서 지냈고, 일정기간(약 한달) 동안은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게 되었으니,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각자에게는 일종의 축제 분위기였을 것이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고1~고3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로 매우 즐겁고 보람있고, 뿌듯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새롭다. 큰 봉사는 아니었어도, 주를 위한 것이었으니 힘을 다해 정성껏 섬겼던 기억이 새롭다.

-다른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쁨이 신선했고, 거룩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 둘 봉사의 갯수는 많아졌다.

-우리들은 서로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으며, 일하는 것이 기쁘고 보람 있었다.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는 항상 성전에 가까이 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있어서 자주 갈 수 없었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의 성전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주를 향한 큰길이 나 있는 자. 주님을 향한 나침판이 있는 자. 오직 주께로 향한 열정이 큰 자.

-언제든 주를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한 헌신이 항상 준비된 자.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주를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께 제사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물론 제물을 나눠 먹기도 하였다. 화목제물의 경우)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어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큰 복이다. 4,5절 모두 자신들이 복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뜻.

-예루살렘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오르막 길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그 길이 넓은가이다. 자주 다니고, 익숙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 길은 대로가 아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그 길은 쉬운 길이 된다.

3. 눈물을 이겨내는 헌신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에게는 고라의 자손이라는 흠결이 있었다.

-성경에는 스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이 ‘고라의 후예’가 아님을 강조하는 구절도 나온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민 27:3)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앞에 나아와 자기 집에는 아들들이 없으나, 아버지 몫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함.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넣어 모세에게 간청함.

-반면 고라의 아들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들이 죄인의 아들들이라는 자괴감 속에 살았을까? 누가 그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멸망당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는 일이 많았을 텐데 고라의 자손들이 오죽이나 더 했겠는가?

-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눈물 골짜기를 건디어냈다.
- 지금도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라이더로 살아가고 있다.
- 수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 이럴 때 일수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복이다.
- 온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백신 공포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광야에서 늦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늦뱀을 매달게 하였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린 늦뱀을 보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셨다.
-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 예수님만 바라보자.
- 오직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공포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자.

결론; 믿음을 회복하자. 10-12절 말씀 낭독.

<찬양예배>

제목 : 로마서 13장 1-8장

성경: 성도의 국가관

Tag: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롬13:1-8)

-위에 있는 권세들;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당시에는 군사들을 통한 통치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만약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댓가는 혹독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다.

-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 되었다.
- 과거보다 훨씬 시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다.
- 다만 이념 때문에 지불해야 할 물리적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정치적인 과도기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어느 나라건)
- 폭동이 일어난 조짐이 높아졌는데, 빅데이터 활용으로 불법적인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 그러나 악법이라도 저항을 할지언정, 불복종하지는 말라.
- 불복종도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며, 공공의 유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 정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도 두려워서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넘어간다.
- 그러니 정부를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 정부는 오직 악한 자들을 통제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3절)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 양심을 따라 행하라.
- 노골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 (전광훈목사의 실수)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

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와 관세

조세:국세와 지방세;국세(세무서) 지방세(시청, 구청)

https://www.kipf.re.kr/kor/TaxFiscalPubInfo_TaxStructure1.do